

가톨릭의 가정 종교교육

최영희
(가톨릭대학교)

<요약>

종교는 변화하는 격동기속에서 현대의 시대적 요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또한 그 시대적 요청을 종교는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인간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성장하면서 인간다움게 형성되는 곳은 제일 먼저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공동체이라는 점이다.

가정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이 영위되는 곳이어야 하며, 보다 훌륭한 인간성을 양육하는 제일 첫 번째 학교라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건전한 사회와 굳건한 국가를 건강한 가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인간이 갖는 본질적 관심은 궁극적 관심으로써의 종교에 귀착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종교적 삶의 축적이 가정에서의 종교교육을 통해 점증(漸增)할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인의 전통적인 가정 종교교육을 살펴볼 것이다. 이스라엘인은 가정교육을 시작으로 바로 거기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졌고, 회당 그리고 학교제도라는 면모까지 갖추고 있었다. 특히 후기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책의 집”, “주석의 집” 그리고 “아카데미”의 출현은 특이한 교육적 사실로 보여진다.

가톨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현대 가정의 권리와 정체성에 관한 중요성을 전 인류에게 강조하면서 가정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가정권리 헌장”에서 선포했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핵심주제어: 가톨릭(Catholic: 천주교,天主教), 공의회(公議會), 교황(敎皇), 구약시대(舊約時代), 창세기(創世紀),

Home Education in Catholic

Choi Young He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We live in a period in which many persons are seriously and sincerely seeking to discover or rediscover the sources of strength and vitality that enable them to be productive and loving persons in the service of God and their neighbor.

What nourishes the faith-filled vision that is so necessary for this persons?

To reach the deepest understanding of Catholic education, whether in history or at the present, one must begin with Christianity itself and proceed thence to education. For Catholic education did not come to being as a body of devices set up apart from a living church. This being so, the historical approach in studying Catholic education is especially rewarding.

Certain attitudes of the Hebrew toward the family are basic in understanding the education which took place in that setting.

The family was a mold into which a growing revelation of the nature and will of God could be poured without undermining the family itself. On the contrary, the growing religion strengthened the family to a rare degree. In Hebrew thought the family was in the Lord, and he in it.

In this setting of basic attitudes within the Hebrew family, three ways of teaching and learning stand out.

One of these ways was informal participation by children in the activities by which all the members of the family lived. Another way of teaching was through the control of children's conduct. A third way of teaching was by means of oral tradition passed along in the family. The father to the children shall make known thy truth, was expression of both an ideal and a practice in Hebrew education.

The richest imagery for our conception of God comes out of family life, and that fact speaks volumes for the character of the family life itself. This is no meager tribute to the way earthly fathers in Israel dealt with their children.

The education, when complete, has its three channels of home, synagogue, and school system, and Judaism keeps all of these as long as is humanly possible. But when the worst comes, it can do without the formal schools, and it can even do without the synagogue, for the whole religion in essence passes from generation to the next through the household.

By that approach it becomes evident that education is an inherent necessity in Christianity, so much so that Christianity cannot continue to exist without home education.

The teaching of Scripture in the Catholic family was influenced by the conception of revelation. The conception is that revelation has been adapted by God himself to the capacity of the person who is to receive it. The concept of revelation, certain principles followed naturally, which were of great importance in household education. One is that revelation, Torah, may be put in children's words and still be the same revelation which is expressed in the written Torah.

Key Words: Catholic education, Education of old Testament, Synagogue, Torah

I. 여는말

삼천년기를 맞이한 지금, 변화하는 격동기 속에서 종교들이 오늘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요청들을 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선사한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현대의 시대적 요청의 충족을 어떻게 종교에서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진실과 정의와 사랑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는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요청의 문제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형성이 이루어지는 가정 공동체인 것이다.

가정은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곳이어야 하고, 또 인간성을 길러내는 학교라고 한다. 보다 훌륭한 인간성, 즉 통합적이고 영적인 인간 됨됨이를 기대하므로 여기에 가정교육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그런 진정한 가정교육이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사회와 교회의 안녕이 건강한 가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시대가 없지만, 가정이 갖는 본질에서 가장 응축된 중요성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갖는 본질적 관심으로써 “궁극적 관심”과 직결되는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내부에 있는 궁극적 실재에 대한 확신이며, 그 확신에 대한 현상을 신앙으로써 이해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궁극적 해답에 접근할 수 있는 종교적 삶의 축적이 가정 종교교육을 통해 점증(漸增)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인의 가정 종교교육의 전통을 살펴 볼 것이다. 또한 가톨릭이 추구하는 가정교육의 이상과 가치를 알아보고, 그 내용과 의미에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는 가정과 신앙교육을 고찰하겠다. 특히 본 논문을 통하여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II. 가정에 대한 교회(가톨릭)¹⁾의 가르침

1. 가정의 중요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²⁾는 현대 세계의 사목 현장에서 가정 본연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먼저 인간의 존귀함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었다.

공의회는 먼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떠하며 또 인간을 우주안에서 개인적 내지 사회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리웠는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³⁾

이러한 서술은 현대의 몇가지 긴급과제 중에서 특히 혼인과 가정의 문제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원리와 빛으로 명백히 하는 데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윤리적, 정신적 문제는 가정 공동체의 행복한 상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인간이 일상의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를 함께 나누며⁴⁾, 이 수많은 길 가운데 가정이 첫째가는 길이고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밝혔다.⁵⁾ 사실 가정은 인간이 형성되는 참된 토양으로서 그 사람 됨됨이의 기본적인 모든 것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 이것은 세상 만물이 피조물인 인간을 그 중심과 정점으로 삼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데 기인하고 있다. 가정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기본으로 하여 그들의 독특성을 형성해 가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므로 가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라고 규명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가정은 사회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세포요, 핵심으로서 “소규모의 교회(가정교회)”⁶⁾이며, 가정은 곧 교회의 기초 공동체이라

1) 한국에서 기독교라는 용어가 개신교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천주교(Catholic), 개신교(Protestant), 그리스 정교회(Greek Orthodox), 성공회(Anglican Church)등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천주교만을 가르킬 경우에는 천주교, 개신교만을 가르킬 경우에는 개신교, 이 둘을 모두 가르킬 경우에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일반적으로 공의회라 부르는 종교회의는 교회를 사목할 책임을 받은 주교들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문제나 사목문제를 협의 결정하는 공식 회의인바 주교단 교도권의 단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1962년에서 1965년까지 4차 회기를 거쳐 교회사적으로 21번째 공의회였다.

3) *I Documenti del Concilio Vaticano II*, (Italy:Edizioni Paoline, 1980), p.224.

4)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회칙, *Redemptor Hominis*, 1979, 14항 참조.

5) 교황 요한바오로 2세, 『가정 교서』(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1-2항 참조.

6)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가정 공동체, 49항, (서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리스도교적 의미로 가정은 인류 구원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약을 상징하는 혼인성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이다.”⁷⁾ 교회는 사회와 교회의 안녕이 바로 건전한 가정과 밀접히 직결되어 있음을⁸⁾ 의식하고 있으나 가정의 존엄성이 어디서나 똑같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염려한다. 그것은 다처주의(多妻主義), 이혼의 유행, 이기주의, 향락주의 ... 그밖의 여러 가지 탈선의 풍조로 가정이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20세기가 끝나 가는 이 시대에 빠른 변화들로 인한 가정의 부재 현상을 긴급한 의제로 삼고, 교회와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을 “가정교서” 그리고 “가정 공동체”⁹⁾라는 문헌에 수록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현대 세계의 사목 헌장”,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등은 혼인과 가정의 존엄성 및 신성성, 가정 보호의 의무, 가정 교육의 중요성, 생명의 존엄성, 부부애, 부부애의 열매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가정에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는 현대 가정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두루 살피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가정의 본질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내용들이다. 사랑과 생명으로서의 건강한 가정 공동체에 민족의 장래가 달렸고, 하느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가톨릭은 가정의 존엄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 가정교육의 권리와 의무

가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마음을 다듬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좌절을 안겨주는 곳이기도 하다.¹⁰⁾ 그러므로 문제있는 가정을 돕고, 건강하고 윤택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교회의 가르침은 건전한 가정을 염두에 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녀에 대한 교육의 의무는 부모의 의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¹¹⁾ 특별히 가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키워 나가게 하는 시작과 마침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이라는 과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가정은 보다 훌륭한 인간성을 길러내는 학교와 같다. 그 생명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다정한 마음의 일치와 상호 협의가 필요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열줄

1983) ; Lumen gentium 11항, 참조,

7) 김유철, 가정의 본질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180, 1994, 5쪽.

8) Gaudium et spes 47항, 참조

9) Familiaris Consortio,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1983.

10) Doherty, 1992, p.32.

11) Gaudium et spes 52항, 참조.

모르는 협력이 요구된다.¹²⁾

양친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지니며, 양친은 자녀의 첫째이며 주되는 교육자로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중대하다.¹³⁾ 곧 “가정은 첫 번째 교육 공동체이다.”¹⁴⁾ 이렇게 교회의 가르침은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한 두 가지 근본 진리로서 첫째, 인간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도록 불림 받고 있다는 진리, 둘째, 모든 사람은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자기 완성을 발견한다는 진리이다.¹⁵⁾ 교육은 이제 그 무엇보다도 부모 양편의 상호 증여로써 “사랑의 문화”를 자녀에게 전달해 주어야 가정 교육의 정체성이 확립될 것이며, 바로 그 사랑의 문화는 자녀 안에 느낌과 삶과 행위에 결합되어 그 속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장 깊고 소중한 영향을 그의 생활에 지속시킬 것이다. 가정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은 바로 종교교육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종교교육은 가정이 “가정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교회는 인식하며, 자녀들에 대한 종교교육이 진정한 복음화와 사도직의 주체가 되게 한다.¹⁶⁾

교육은 “인생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 인생의 과제 중에서도 가정 교육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소질과 능력 등을 계발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인격 완성과 하느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키워 나가야 하므로 가정의 권리가 요청된다는 것을 교회는 인식했다. “교육의 임무는 먼저 가정의 것이지만 또한 사회 전체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¹⁷⁾ 따라서 가정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수준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가톨릭 교황청은 “가정 권리 헌장”을 선포했다.¹⁸⁾

“헌장”의 본질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헌장은 결혼과 가정에 관한 교의신학이나 윤리신학의 제시가 아니며, 제 단체나 개인의 행동 규범도 아니다. 또한 이 헌장은 가정에 관한 단순한 이론적 원리의 선언과도 다르다. 가정 권리 헌장은 그리스도인이건 비 그리스도인이건, 현대를 사는 모

12) *IDocumenti del Concilio Vaticano II*, p.233.

13) 앞의 글, 가정 공동체, 14항 · 27항 · 36항, 참조.

14) 위의 글, 40항.

15) 앞의 글, 가정 교서, 52쪽.

16) 위의 글, 16항 참조.

17) *I Documenti del Vaticano II*, 560쪽.

18) 1980년 “현대 세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요청에 따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가정 권리”에 대한 선언을 준비하였고, 1983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하였다.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이 선언에 따른 제반 활동이 있어 왔다.

든 사람들에게 가정이라는 자연적이고도 보편적인 사회에 내재하는 기본 권리들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정리하고 이를 형식화하여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⁹⁾

이와 같이 가정 권리 헌장은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선언이 아니라 인류에게 보편적인 가정 권리의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각국의 정부에 이 헌장을 보냈다. 그 까닭은 가정의 권리가 정치가와 관료들에 의해서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하며, 모든 가정이 이런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결속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²⁰⁾ 헌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듯이 가톨릭은 각 시대의 인간과 그 문제에 가정이 밀접히 결부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육에 관한 상황일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교회의 사명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황 비오 11세는 “교회와 가정과의 조화는 참으로 중요하여 교회와 가정은 그리스도교 교육의 하나이요 한 전당(殿堂)을 이룩한다”²¹⁾고 했다.

교회가 지지하는 가정의 권리는 인권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가정의 자기 실현으로써 올바른 권리 행사, 즉 책임 있는 자녀 출산과 교육은 부모의 권리와 직결된다. 가정의 권리들은 단순히 인간 권리의 총합이 아니라 “한 주체로서 가정의 지위”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고유하고 특수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가정 권리 헌장은 “더 큰” 사회 곧 민족과 국가 그리고 국제 공동체의 법률적 질서 안에서 가정 제도의 실존을 굳건히 하는 데 있다.²²⁾

기독교에서의 가정의 기원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가톨릭의 가정교육은 그 근본적 방향성을 성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가정 종교교육을 살펴 볼 것이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역사적으로 너

19) 교황청 제정 반포, 가정 권리 헌장, 1984, 3쪽.

20) 세계 대의원 회의 주교들이 다음과 같은 가정의 권리를 지정한 것을 요약해 본다. 가정의 존재 권리와 발전 권리, 즉 모든 인간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가정을 건설하고 생계 유지에 적절한 수단을 소유할 권리. 생명의 전달과 자녀 교육에 관한 책임을 이행 할 권리. 친밀한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의 권리. 각자의 신앙을 가지며 전파할 권리. 필요한 도구, 수단, 제도의 도움을 받으며 가정의 전통과 종교적 문화적 가치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권리. 가난하고 병든자가 육체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얻을 권리. 적당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권력자와 하급 권력자 앞에서 단독으로나 연합해서 표현하고 대표할 권리. 가정의 역할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가정이나 집단과 연합체를 형성할 권리. 적절한 기구와 법률의 보조를 받으며 마약, 도박물, 알콜중독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할 권리. 가정의 가치를 육성하는 데에 적합한 오락 시설에 대한 권리. 노인이 가치있는 삶과 죽음을 맞이할 권리. 더욱 유쾌한 생활을 찾아 이주할 권리이다.(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전의서 42항 참조, 가정 권리 헌장 참조, 가정 공동체 46항 참조)

21) *Divini Illius Magistri - Della Educazione Cristiana della Gioventu*, 1929, p.32.

22) 가정 교서 17항, 참조.

무 오래된 과거이지만 “제삼천년기”를 맞이 하는 교회의 역사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은 항상 밀접하게 어우러져 왔다. “새로운 것”은 “오래된 것”에서 생겨나며 “오래된 것”은 “새로운 것” 안에서 충만한 표현을 할 수 있다.²³⁾ 이 충만한 표현은 “교육적 힘의 비밀”에 의해서 실현될 것이다.

III.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가정 종교교육

인간은 의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의식은 자기의 유(類), 자기의 본질을 추구하며, 그 본질은 무한자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한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도 무한자이신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을 영위해 왔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은 삶과 종교, 그리고 교육을 통해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켜왔다. 다시 말해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종교교육의 전통을 만들었으며, 그 교육적 경험 가운데 가정이라는 구심점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하느님과 이스라엘을 사랑과 성실의 관계에서 이해한 구약의 정신은 가정이 하느님을 이해하는 <첫 배움터>임을 분명히 일깨워 준다.”²⁴⁾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에 “가정”이란 단어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 그래서인지 히브리 인들은 가정에 관한 실제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에는 가정이 어떠한가 하는지에 대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고가 있다.

성품이 불량한 자녀가 많아도 두려워 하지 말아라. 불경스런 자식들은 낙이 아니다.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숫자가 많더라도 기뻐할 것이 없다. 한 아들이 일천 아들 보다 나을 수 있고 불경스런 자식들을 갖기 보다는 자식없이 죽는 편이 낫다.²⁵⁾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으로 많아야 하지만 특히 질적으로 뛰어난 자녀들을 두어야 한다고 기대했다. 이러한 기대의 성취는 가정교육이 중심이 되어 유일한 방편의 역할을 할 때 가능한 것이다. Gelin(1968)에 의하면 “잠언서”에서는 부모에 의한 가정교육의 주제를 빈번하게 나타내 보이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첫째자리를 차지하

23) 교황 요한바오로 2세, *Tertio Millennio Adveniente*, 1994, 18항.

24) 성서학에서의 가정, 『한국 가톨릭 대사전』, 1994, 48쪽.

25) 집회서 16, 1-3.

게 했다고 한다. 우리는 “마카베오 후서”에서 대단히 뜨거운 가정교육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 있으며, 여기서 어머니는 자기의 일곱 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친다.²⁶⁾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참으로 자녀들에게 종교적인 전통을 전달해 주는 환경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²⁸⁾”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요, 어리석은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²⁹⁾”라는 것은 집안에서의 철저한 교육을 나타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통해 양보다는 질적으로 훌륭한 백성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초기 이스라엘³⁰⁾의 가정 종교교육

이스라엘 선조들은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목축업을 하던 유목민이었다.³¹⁾ 이 유목민들은 점차 정착생활로 접어들기 시작하며 때로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던 지방을 정복하여 다스리기도 한다. 그들의 사회, 국가적 변천과정에서 교육사와 관련되는 주목할만한 단계를 경험해 왔다. “고대 이스라엘의 교육은 고대 근동지방의 일반적 교육체제와 부합되었다.”³²⁾ 이렇게 고대 근동지방의 일반적 교육조직의 배경을 비추어볼 때 “구약세계의 교육실태가 메소포타미아와 에집트의 거대한 도시에서 형성된 정교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그와 동일한 전통내에서 형성되었다.”³³⁾는 것이다. 이 민족의 역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교훈은 아주 특이하게 고도의 종교적이고 동시에 도덕적인 이상에 근거를 둔 교육체제이고, 이에 대한 집요한 고수가 정치적 체계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통일성을 보존해 왔다는 점이다. 적어도 이 민족의 구원은 교육으로부터 기인하였다는 것³⁴⁾을 미루어 볼 때, 이는 히브리 부모들의 마음속에서 가

26) 마카 7장, 참조.

27) 신명기 21, 18-21.

28) 잠언 13, 24.

29) 잠언 10, 1; 15; 20; 17, 25; 19, 13.

30) 초기 이스라엘이라 함은 선사시대를 지나 역사 형성기로 도입되는 기원전 13세기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으로부터 팔레스틴(가나안) 정복(BC 1250-1200년), 선사시대(BC 1200-1020년), 통일왕국시대(바울, 다윗, 솔로몬왕의 통치, BC 1020-922년), 그리고 분열왕국시대(북왕국 BC 922-722년, 남왕국 BC 922-587년)까지 즉 남왕국이 바비론에게 함락되고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를 말한다. 이를 또한 히브리 교육기라고도 한다.(강희천 외, 『기독교교육사』, 교육목회, 1992, 19쪽.)

31) 창세 11, 27-31; 신명 26, 5-11; 사도 7, 2-4.

32) *Education of Old Testament*,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1962, p.27.

33) 앞의 글, 28쪽.

34) E. H. Wilds, K. V. Lottich, *The Foundations of Modern Education*, 1961, p.46.

장 결정적인 교육의 모든 요소들이 왜곡되거나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의 선민의식이 보존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교육은 자녀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인의 교육책임은 부모에게 다 있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활동을 히브리어로 야샤르(jsr 신명 8, 5; 잠언 31, 1)라고 하는 데, 이것은 바른데로 인도하는 교육(욥기 4, 3)과 동시에 과오를 책망하는 훈계를 의미한다.³⁵⁾

초기 이스라엘 시대의 교육 특징은 순전히 가정적인 관심이었다. 교재는 단순히 가정적인 것이거나 약간 유용한 기술이기도 하고, 특히 지파의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 종교의식의 실제적 행사이었다. 따라서 교육은 곧 종교적 의무이고 자녀 교육은 부모의 의무로 부과되었던 것이다. 본격적인 히브리 교육은 아브라함의 계약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 계약에서의 큰 시사점은 민족적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계약은 바로 이스라엘인과 하느님과의 계약이지만 모든 민족, 가정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관계되어지는 것이었다.³⁶⁾ 이러한 교육은 바로 하느님께 모든 기원과 삶의 목적을 둬으로써 신앙이라는 문제가 순수하게 파악되고 그 의미가 교육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³⁷⁾”고 하였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모세에게 한꺼번에 계시하셨다. 이 계획은 이스라엘을 에집트 땅에서 구출하여 가나안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³⁸⁾ 이스라엘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계약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구약성서에서 가정교육의 역할은 “신명기 6, 4-9”에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6절에는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거듭 들려주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교육의 명료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 구절들은 단지 가정의 교육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 이상의 매우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즉 히브리어 화난(shanan)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방법론에 큰 암시를 준다. 문자적으로 그 낱말은 “자극하다” 또는 “연마하다”라는 뜻이며...히브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적 욕구를 끊임없이 촉구하였고...그들은 이스라엘 신앙에서 학습이 제공되어질 수 있는 교육적 분위기를 형성할 질문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연마했었다.³⁹⁾

35) H. W. Wolff, *Antropologia dell'Antico Testamento*, (Brescia, Edirice Queriniana, 1975), p.229.

36) 유재덕 역, 『기독교교육사』,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5-16쪽.

37) 창세 12, 2.

38) 출애 3, 7-10. 16-17.

39) K. O. Gangel, “Toward a Biblical Theology of Marriage and Family”, *Journal of Psychology and*

이와 같이 히브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배우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선택하여 학교로 만든 셈이다. 그 가정학교에서 그들은 교육의 형식이 풍족할 만큼 뛰어나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의식(祭衣式)은 발전시켰다.

가정에 대한 히브리인들의 태도에서 교육을 이해하는 기초를 발견하게 된다. 가정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사실들은 먼저 하느님의 뜻이 자녀에게 알려지게 하는 교육이고 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통로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은 하느님의 속성과 뜻이 점증(漸增)하는 계시가 가정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발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히브리 사상에서 “가정은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은 가정 안에 있었다”는 믿음인 것이다. 가정이란 하느님 뜻을 알기 위한 최초의 장으로 히브리인들이 간직해온 태도에서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로써 히브리인들의 가정교육은 곧 종교교육이 되어 교수와 학습에 대해 3가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다.⁴⁰⁾

첫째 교육의 방법은 자녀들이 가정생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배우게 된다. 포로기 전까지의 가정교육의 대부분은 직업적인 것이었다.⁴¹⁾ 직업적인 것도 종교적 의미를 전부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상 직업에 대한 공통된 필연성은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며, 하느님의 뜻과 관계를 맺는 일이었다.

둘째 교육의 방법은 자녀들의 품행을 통제하는 일이었다. 족장사회에서 아버지는 막강한 힘을 부여받고, 자녀들의 행위를 엄격하게 훈계했다. “잠언서”와 “지혜서”에서 민족의 태도를 가장 적절하게 제시하는 통찰력을 찾을 수 있다. 그 하나의 예로써.

미련한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지만,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슬기롭게 된다. 훈계를 무익하게 버리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이다. 그러나 견책을 경청하는 자는 총명하게 된다.⁴²⁾

이외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는 일상생활의 규범에 관한 세밀한 법규들이 많이 실려있다. 가정은 이러한 법규들을 아주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장이었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가 성장하는 자녀들의 세심한 행동까지 통제하는 일

Theology, Winter, 1977, p.60.

40) L.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63), pp.18-22.

41) 유목 시대에 남아는 가축을 돌보고, 사냥하고, 활 쏘고, 돌팔매질을 배웠다. 여아는 곡식 빵기, 빵을 굽고, 우유를 짜고, 버터를 만들고, 요리, 바느질, 물레를 돌려 실을 잣고 베를 짜며, 염색하는 법을 배웠다. 농경시대에 들어 와서는 농사일, 목수일, 도자기 굽기, 피혁 만들기 등이 있었다. 가정에서 만든 생산품을 팔기 위해 상업술도 배웠다.

42) 잠언 15장 참조.

이었다. 더욱이 하느님의 개념에 관한 가장 풍부한 상상력은 가정생활에서부터 생겨났으며, 그 사실은 가정의 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으로써의 관심을 끌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는 제 어미를 멸시한다(잠언 15, 20).” 라는 내용과 같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질은 교육결과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세 번째 교육의 방법은 가정에서 전래된 구전(口傳) 전승(傳承)이었다. 성서를 입으로 암송하여 자녀들에게 민족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전하는 것이었다. 히브리인들은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확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전하였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의 깊은 의식 속에는 율법이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내용이었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아버지의 근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였다.

나도 한 아버지로써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하심을 전하겠습니다.(이사야 38, 19)

구약에서 “훈계”, “가르침”, “지도” 등을 의미하는 교육 전용용어는 히브리어 토라(Torah, 율법)로서 이 명사는 “지시하다”, “보여주다”는 의미를 지닌 동사(야라)에서 파생됨으로써 “방향을 세우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토라는 하느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규율 있는 생활을 하게끔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⁴³⁾ 여기에서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종교와 직결되어 가정교육이 곧 종교교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교육 목표를 요약하면 첫째, 히브리 국가의 역사적 유산, 즉 하느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둘째, 삶에 있어서 윤리적 행동에 관한 교육, 즉 지상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획득하기 위하여 인간의 삶은 어떻게 영위되어야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었다.⁴⁴⁾ 그 교육의 내용으로서는 지혜문학과 “잠언서”가 유명하다.

2. 후기 이스라엘⁴⁵⁾의 가정 종교교육

예루살렘 함락과 바빌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가적 재난은 종교적, 교육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이 민족은 독립에 대한 꿈이 점점 그들 종교

43) *Education of Old Testament*, 1962, p.27.

44) 앞의 글, 29쪽.

45) 후기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 바빌론에게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고 유대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시작되어 로마 지배시대(기원전 63-기원후 70년)까지의 외세 지배하의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말한다. 이 시기를 “유대주의 교육의 시대”라고 한다.

의 보존에 대한 열정과 일치되었고, 국가의 종교가 존속하는 한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종교가 존속된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 종교의 존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교육이었다.⁴⁶⁾ 그리하여 교육적 열정은 마침내 교육의 조직화와 제도화가 되어 새로운 양상의 교육적 특징이 등장하였다.

- 1) 전 삶의 영역을 지도하는 법전(제사법전)의 완성.
- 2) 제사법전을 국가차원에서 채택하여 율법에 대한 재인식과 백성을 하나로 묶는 계기의 마련.
- 3) 율법서와 함께 잠원, 집회서 등의 방대한 성문서들이 교과서가 되었음.
- 4) 회당의 출현은 전례를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었고 초등, 중등, 고등교육 제도가 생겼음.
- 5) 교육 전문가인 지혜자 또는 현자, 소페림(Soferim, 서기관, 문자적으로 성서를 배운 사람)집단이 등장.⁴⁷⁾

이렇게 새로운 교육의 등장으로 예리한 지성과 탁월한 신앙으로 근본이 되는 궁극적 원리를 탐구하면서, 이를 다음 세대의 의식 속에 뚜렷이 새기게 했다.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전적인 교육이 사라지지는 않았고, 초등학교에 가기전 가정에서 안식일, 칠칠절, 초막절 등 절기 준수를 통한 종교의식의 교육을 받았다. 가정에서의 종교의식은 계속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의미가 더욱 풍부해진 가정교육으로써의 의무와 그 실천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세밀하게 했다.⁴⁸⁾ 즉, 0-3세 사이는 종교적 의무에서 제외되었다. 4세에서 12세까지는 부모와 함께 회당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에게 의해 토라의 지식과 준수를 배운다. 법적으로 의무를 수행 할 나이가 되기 전 몇 년 동안 속죄일과 관련 있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한다. 남아는 미성년으로 있는 동안 회당에서 토라를 읽고 그것을 재해석 할 수 있다. 아버지 등에 업히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게 성장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축제때 성전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13세가 되면서부터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 소년이나 소녀가 사춘기의 징후가 나타날 때 율법의 계명을 준수하게 했다.

더욱이 후기 이스라엘의 교육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 제도의 출현은

46) Sherrill, 앞의 글, p.31

47) S.H. Eletcher, *Education in Ancient Israel: From Earliest Times to 70 A.D.*(Chicago :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1919), p.77.

48) Sherrill, 앞의 글, pp.44-47.

특이한 사실로 보여진다.

1) 초등학교를 Beth Ha-Septher 곧 “책의 집”이라 하였고, 여기에서 우리는 학교가 있었다는 점을 그 시대의 용어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을 의미하는 한 용어는 “아들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님(Banim)이 있었고, 교수를 지칭하는 수메르어 ummia에 대한 또 다른 용어는 “배움의 아버지”(school father)이었고, 학생은 “배움의 아들”(school son)이라고 불리었다. 학교 직원들 중에는 “전문가” 혹은 “교수”라는 뜻의 ummia가 있었는데 그는 학교의 우두머리였다.⁴⁹⁾ 어린이들은 6-7세가 되면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규정을 여호수아 벤 가마라는 제정했고 또한 교사들을 임명했다. 초등학교의 목적은 율법을 읽고 쓰도록 하여 성인이 될 때 율법을 책임 완수하도록 함이었다.⁵⁰⁾ 초등학교의 명칭을 나타내는 “책”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토라의 이 책은 모세오경이었고, 이 모세오경을 마친후에는 예언서와 성문서들을 계속 공부했다. 학교의 교육은 교과를 정확하게 학습해야 하므로 암기에 중점을 두었고, 주로 회당을 이용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⁵¹⁾

2) 중등학교는 초등교육을 마친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다. 이 중등제도를 베드 하미드라쉬(Beth Hammidrash) 곧 “주석의 집”이라고 부르며 10세에서 15세까지 다니게 되므로 초등교육보다는 더욱 고전적이었고, 구전으로 된 토라를 연구하고 해석(주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중등학교에서는 논리학, 수학, 천문학, 지학, 생물학도 가르쳤으나 그것 자체의 연구가 목적이 아니라 토라를 더 잘 알기 위한 보조 수단이었다.⁵²⁾ 이렇게 학교는 그 자체가 완벽한 종교의 논리적 산물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고등교육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아카데미” 혹은 “학교”라고 부르며, 박식한 학자들이 자신들의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고등연구에 전념하는 곳으로서 유능한 사람들을 가르쳤던 대학(오늘날의 형태와는 다름)과 같은 신학적인 성격을 지닌 학교이었음을 묘사한다. 랍비들은 여기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후 학교의 책임자로부터 임명되었고, 이곳에서 율법을 해석하면 그 해석이 유대교의 양심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최고 법정의

49) Kaster, J.(1962). *Education of Old Testament: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bing-don Press, 1962), p.27

50) 오인택 외, 『기독교교육사』, (서울:교육목회, 1992), 37쪽.

51) *Education of Old Testament*, 위의 글, p.33.

52) Sherrill, 위의 글, p.63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⁵³⁾

이상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교육형태는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에게로,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견해가 뚜렷하다. 이 시대는 가정교육을 시작으로 바로 거기에서 종교교육이 이루어 졌고, 회당 그리고 학교제도까지 세가지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민족에게 최악의 경우를 당하게 될 때 공식학교가 없어도 교육이 수행될 수 있고, 회당이 없어도 교육이 수행될 수 있었다. 그렇게 수행될 수 있는 교육이란 근본적으로 가정교육을 통하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이 민족의 강렬한 힘은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육에서 놀랄만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IV. 가정과 신앙교육

White Head에 의하면 “교육의 본질은 종교적이다”라고 원천적인 배경을 지적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종교⁵⁴⁾, “religion”이란 어원적 의미는 라틴어 “religio”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종교의 핵심을 유일신 전통에서 처럼 절대신과 인간의 관계로 보든 구극적 실재를 향한 내성의 마음가짐으로 보든,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을 다루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⁵⁵⁾

초월적 세계에 공감에 없는 비종교인은 종교를 제대로 볼수 없으며, 종교적으로 자신의 인격적 신앙에 눈뜬 사람만이 이웃의 신앙도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실재로 볼수 있다.⁵⁶⁾ 그런 신앙을 염두에 둔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완성된 “이미 만들어진” 존재가

53) Sherrill, 위의 글, p.64.

54) “宗教”라는 용어는 19세기말 종교학이 일본에 소개되면서 서양어인 “religion”의 번역어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중국, 우리 나라 등 한자 문화권에 통용하게 되었다. 宗이라는 글자는 중국불교에서 “siddhant”의 번역어로 진리를 파악한 최고의 경지를 뜻하며, 敎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여 가르치는 것을 지칭하였는데, 인류의 종교현상 전체를 가리키게 된 현대어 宗教와 직접적인 연결은 없다.(小口偉一·堀一郎 監修, 『宗教學辭典』, 1973, 255-256쪽 ; 김승혜 편, 『종교학의 이해』, (서울 : 분도출판사, 1989), 17쪽.)

55) 김승혜 편, 『종교학의 이해』, (서울 : 분도출판사, 1989), 17쪽.

56) 이찬수, 「윌프레드 스미스의 세계신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193, 1995, 101쪽.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통하여 진정한 종교인으로서의 믿음의 자세를 취하도록 그 습득과정에서 “이 믿음은 지복직관과 영광의 빛을 누릴 서곡처럼”⁵⁷⁾ 교육되어야 한다. 성서에서는 “신앙”이 모든 종교생활의 원천이며 중심으로 되어 있다. 신앙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이므로 종교교육에서는 신앙을 주시해야 하고 그와 함께 신앙이 성장되게 보다 깊은 뿌리를 갖도록 지각력과 자아이탈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본질을 응시하고, 신(神)적인 심연을 발견하고, 은총 안에 확고한 상태가 되게 하는 잠재력의 경험을 일깨워 준다.

그러면 성서에서 “신앙”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말의 다양성은 신앙인의 영적 태도가 지닌 복합성을 나타낸다. 그 중에서 “아만”⁵⁸⁾과 “바타”라는 두 낱말이다.⁵⁹⁾ 이 낱말에서 하나는 성실한 상대자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라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실재를 말과 표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해 방법이라는 의미이다.⁶⁰⁾ 인간의 언어가 사고의 표출 방법인듯이 외적 신앙고백은 신앙의 방법이 되면서 또한 신앙의 행위가 된다.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St. Thomas Aquinas는 세가지로 표현한다.

하느님을 생각함(Credo Deum), 하느님에 대해 생각함(Credo Deo), 하느님을 믿음(Credo in Deum)의 표현들이 가르키는 것은 첫째가 질료적 대상, 그 다음이 형상적 대상,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궁극적 대상이다.⁶¹⁾

따라서 하느님이 질료적 대상, 형상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⁶²⁾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⁶³⁾. 그는 불리움에 순종하고 이 약속(땅과 많은 후손을 약속 받음)⁶⁴⁾에 자기를 건다. 아브라함을 통해 종교의 신앙을 연구한다는 것은 결국

57) 이흥근 역, 『영성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1987), 293쪽.

58) 아만(aman)이라는 낱말의 원 뜻은 받치다. 머물다. 공급하다. 손으로 양육하다. 일어나 있다. 견고하다. 굳건하다. 기대다. 기초하다. 안정되다. 믿을 만하다. 신앙하다. 믿다 등으로 나타나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단단함”과 “확실함”을 뜻하고 있다. 바타(batah)라는 낱말의 원 뜻은 믿다. 확신하다. 신임하다. 두려움이 없다. 담대하다. 안전하다. 믿도록 설득하다 등으로 나타나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안전”과 “신뢰”를 뜻한다.

59) 『주제별 성서사전』, 1992, 524-525쪽; 『성서신학 사전』, 1984, 353쪽.

60) 히브 11, 1.

61) 이재룡 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3), 222쪽.

62) 로마 4, 19.

63) 창세기 15, 6.

64) 창세기 12, 1-2.

인간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아브라함의 종교적 행위의 표현을 통해 그러한 표현을 낳는 인간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전통을 전통 자체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곧 전통을 통해 전통을 낳는 신앙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앙교육은 바로 신앙인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신앙인은 결국 하느님을 궁극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신앙의 궁극적 대상이었다. 구약시대에 실시되었던 신앙교육은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첫째 가정을 중심으로, 둘째 부모를 중심으로, 셋째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넷째 삶을 중심으로 해서 실현되었고, 어려서부터의 신앙교육은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어 고유한 교육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신앙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믿을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안에 사고의 동의로써의 신앙을 갖게 하신다. 왜냐하면 동의는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⁶⁵⁾ 이것은 인간실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실존의 궁극적 조건과 대면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자신을 인간의 목적으로 설정했으므로 하느님께 합일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요 목적이며, 이 목적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느님 자신이므로 하느님이 먼저 거기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⁶⁶⁾ 여기에 계시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다. 우리는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으나⁶⁷⁾, 그 범위를 초월하는 진리는 계시에 의존한다.⁶⁸⁾ 따라서 신앙이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⁶⁹⁾ 이는 깊은 자기의 양심 속에서, 자신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신비를 충만한 친밀감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힘이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구원의 힘’인 것이다.”⁷⁰⁾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은총으로 된다면, 그 구원은 그 은총을 전적으로 짊어지고 완성해야 할 신앙을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종교의 내면적 모습, 인류의 종교적 전통은 모든 인간의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구조적 보편성과 공통성을 인류의 종교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¹⁾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는 물론 회당의 예식에도 참석하게 하여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더욱 풍성하게 열매맺도록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형식을 갖추어 예배하였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기

65) 이재룡 외, 위의 책, 226쪽.

66) 이사 64, 4 ; 마르코 2, 9 참조.

67) 로마 1, 20.

68) 히브 1, 1-2.

69) 『한국 가톨릭 대사전』, 1985, 724쪽.

70) K. Rahner, *Do You Believe in God?*, tr. R. Strachan, (Newyork : Newman, 1969), p.94.

71) 이찬수, 앞의 글, 98쪽.

위하여⁷²⁾ 거룩한 모임을 가지며, 이 예식을 회당에서 재현하고, 공동기도를 바치고, 성서를 낭독하고, 해석하였는데⁷³⁾ 1부는 공동기도이고, 2부는 교육이었다.⁷⁴⁾

제1부 공동기도

1. 강대상 앞에서 드리는 기도

가. 2회의 기도(찬미와 감사)

나. 성서낭독(신명 6, 4-9: 11, 13-21; 민수 15, 37-41)

모든 남자들 한 목소리로 한다.

다. 기도

2. 법제 앞에서 드리는 기도

가. 다양한 기도(초기에는 12번, 후기에는 18-19번)

나. 제사장의 축복(민수 6, 23-24) 아론의 후손이 하는데, 그가 없으면 그날의 인도자가 한다.

제II부 교육

1. 성서학습: 율법서와 예언서의 본문은 원어로 먼저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해석해 준다.

가. 첫 성서 낭독자의 기도

나. 율법서중에서 택하여 읽고 번역

다. 예언서중에서 택하여 읽고 번역

라. 마지막 성서낭독자의 기도

2. 해설: 그날의 성서구절이 삶으로 적용되기 위해 해설이 뒤따른다.

이스라엘인들은 전통적으로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과 행위도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교육은 물론이고 예식교육과 더불어 신앙교육을 고취시키면서 인간교육을 고수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의 신앙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몰아적 사랑으로 하느님께 정향함으로써 민족의 종교적 전통을 교육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태도는 곧 신

72) 신명 5, 12.

73) 『성서신학 사전』, 376쪽.

74) Elletcher, pp.88-90. ; Sherrill, pp.47.

양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이 전개되었다.”⁷⁵⁾

V. 맺음말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교육은 이스라엘의 가정 교육에서부터 시작하였고 기본적인 교육내용으로서는 토라(율법)가 그 중심이었다. 가정교육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경험 속에서 하느님과 계약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후대에게 전달하려는 교육적 질서의 전통을 중요시했다.

가톨릭은 가정 종교교육을 통하여 인간성 안에 잠재된 종교성을 불러 일으켜 진리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삶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목적으로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가정이 하느님을 이해하는 “첫 배움터”임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가정 종교교육을 통하여 현대의 종교교육이 되찾아야 할 영역은 무엇보다 먼저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가정의 역할과 종교 교육자는 바로 부모라는 제1차적 의무의 회복이라는 점이다.

교황청에서 반포한 “가정권리헌장”이 우선 이 땅 위에 꽃피워 열매맺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천주교회의 거의 각 교구에서는 가정 사목에 대한 여러 기구를 설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마치 작은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때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75) 박상래 역, 『세상과 인간을 위하시는 하느님』, 1981, 67쪽.

< 참 고 문 헌 >

- 김승혜 편저(1989), 『종교학의 이해』, 서울 : 분도 출판사.
- 김영환 편(1984), 『성서 신학 사전』, 서울 : 분도 출판사.
- 김유철(1994), 가정의 본질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사목》 18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김정환(1982), 『교육의 본질과 과제』, 서울 : 박영사.
- 교황청 제정 반포(1983), 『가정 권리 헌장』,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83), 『가정 공동체』,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94), 『가정 교서』,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95), 『제삼천년기』,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 대한성서공회 발행(1977), 『공동번역 성서』.
- 문용린(1994), 가정 권리 실현을 위한 제언, 《사목》 18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손승희(1983),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방송.
- 송열섭(1994), 왜 가정 사도직이 요청되는가?, 《사목》 18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안성림 역(1981),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독창성』, 분도 출판사.
- 오인택 외 편(1992), 『기독교 교육사』, 도서출판 교육목회.
- 유봉준 역(1992), 『그리스도교 윤리학: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의한 가톨릭 윤리 신학』, 분도 출판사.
- 유재덕 역(1992), 『기독교 교육사』, 기독교 문서 선교회.
- 유재덕 역(1993), 『고대세계의 교육사상』, 기독교 문서 선교회.
- 이성배 역(1984), 『성서의 인간』, 분도출판사.
- 이재룡 · 이동익 · 조규만(1993),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이찬수(1995), 웰프레스 스미스의 세계신학, 《사목》 193,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 이찬수(1999), 『인간은 신의 암호』, 분도 출판사.
- 이흥근 역(1987), 『영성 신학』, 분도 출판사.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69), 한국천주교 중앙 협의회.
- 장익 역(1974),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 분도 출판사.
- 정성구, 고영수 감수(1992), 『주제별 성서활용』, 대전 : 보문 출판사.
- 장종철 역(1991), 『기독교 교육』, 서울 : 컨콜디아사.
- 정태현(1989), 『성서의 인간학』, 《사목》 121,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 진교훈(1994), 가정의 해에 즈음하여, 《사목》 182,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최창무(1989), 『윤리신학II』,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함세웅(1984), 『성서학에서의 가정』,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 가톨릭 대사전편찬 위원회.

Bissoli, C.(1981), *Bibbia e Educazione: LAS-Roma*.

Cope, H. F.(1955), *Religious Education: The Encyclopedia American*, New York: American Corporation.

Eletcher, S. H.(1919), *Education in Ancient Israel: From: Earliest Times to 70 A.D.*, Chicago: The Open Court Publishing Co.

Gangel, K. O.(1977), "Toward a Biblical Theology of Marriage and Famil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Winter.

Hans, K.(1971), *Teologia dell'Educazione*, Brescia, La Scuola.

Hovre, D.(1973), *La Pedagogia Cristiana e Le Ideologie del Mondo Contemporaneo*, Brescia, La Scuola.

I Documenti del Concilio Vaticano II.(1980), Italy: Edizioni Paoline.

Kaster, J.(1962), *Education of Old Testament: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Abingdon Press.

Pope Pius XI.(1929), *Divini Illius Magistri*, Roma.

Rahner, K.(1969), *Du You Believe in God?*, tr. Strachan, New York : Newman Press.

Sherrill, L. J.(1963),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Sicari, A.(1979), *Chiamati per Nome - La Vocazione nella Scrittura*, Milano, Jaca Book.

Ulich. R.(1968), *A History of Religious Education*, London, University of London Press.

Wilds, E. H., Lottich, K. V.(1961), *The Foundations of Modern Educ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Wolff, H. W.(1975), *Antropologia dell'Antico Testamento*: Brescia, Edirice Queriniana.